

시선

사설

한 걸음 남겨둔 총장 선출

마침내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3인 선출까지 끝났다. 총장 초빙 공고가 지난 9월 19일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로부터 57일이 걸렸다. 그 결과 지난 14일 최종 후보자로 기호 3번 황주호, 기호 6번 한준태, 기호 7번 장성구 후보자가 선출됐다. 이로써 구성원 손으로 추려낸 3명의 후보자가 범인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개교 70년 아래 처음으로 총장 선출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된 고무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구성원의 역할은 마무리됐고 총장 선출의 열쇠를 범인이 넘겨받게 됐다.

그렇다. 총장 선출까지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뒀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 한 건 설득력 높은 총장 선출 '과정'이다. 세 명의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낸 현재 여러 이해관계가 총장 선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다.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적 총장 선출임을 고려하면 구성원의 피하기 어려운 불안감이다. 일부 남아있는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무사히 총장이 선출되어야 그 다음, 또 그 다음 총장 선출 과정에 긍정적인 선례로 기억될 수 있다. 부정적인 선례는 추후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판단 근거가 되어버린다. 이번 총장 선출뿐 아니라 이후 경희의 미래까지 고려하면 남은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구성원을 대표하는 총장이 최종적으로 선출될 때 그간의 노력은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동안 구성원 간 일어난 갈등은 하나의 합일된 목소리를 위해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잡음이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민주적 총장 선출이란 목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민주적 총장 선출에도 달했을 때 더욱 의미를 가지는 행보임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을 대표하는 총장은 더 나은 경희의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한다. 구성원은 계속해서 차기 총장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작년 12월 구성원은 인식조사를 통해 차기 총장에게 행정, 경영 역량 및 소통적 리더십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약 3천여 명의 학생 설문을 통해 차기 총장에게 교육 여건 개선을 바란다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구성원은 그간 염원을 담아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기 총장은 이해관계가 아닌 구성원을 우선시해야 함은 당연 할 것이다. 총장 선출에 대한 무게감은 마지막까지 구성원의 기대감과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범인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총장을 선임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이제 공은 범인으로 넘어갔다. 범인은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의 4년 동안 경희대학교를 이끌어갈 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범인이 하더라도 구성원을 오롯이 대표하는 총장이 선출돼야 함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간 들여온 구성원의 노력을 완성하는 건 결국 범인의 합리적 결단에 달려있다. 온 구성원이 간절히 열망해왔던 민주적 총장 선출에 한 걸음만을 남겨둔 상태다. 총장 선출을 위해 길었던 과정을 잡음 없이 매듭지을 때다.

만평 - 학내 청소 노동자 휴식공간 실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세시봉

이후승 (편집장)



외국어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학생은 외고를 선택한다. 영어를 기반으로 국제정치·문화·법 등 국제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은 국제고로 진학 한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율 설정한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은 자사고에 지원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고등학교를 선택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부터 세 학교를 일반고로 바꾸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 교육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 큰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명도 이뤄지지 못했다. 일반고 전환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고 전환이라는 결정을 했다면 왜 그 화살이 모든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가 아닌 외고·국제고·자사고에만 향했는지, 그리고 고교서열화 문제가 그저 원하는 분

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피해를 봐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일단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 8학군' 중심 고교서열화를 다시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쏠림 현상 때문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 실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을 평가한다. 그리고 강남 8학군 고등학교는 오랜 시간동안 좋은 입시 실적을 보였다. 모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기존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수용하던 우수한 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쏠리는 모습은 쉽게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7일 유 장관의 일반고 전면 전환 발표 이후 강남 아파트 전세 문의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결국 다시 고교서열화를 만들게 되는 흐름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사교육 심화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의 불평등이란 학생들이 더 깊게 배우고 싶은 분야를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지만 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혹여 불평등이 비싼 학비 때문이라면 특목고 학비를 현행보다 인하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유지하면서 일반고 역량을 국가 주도로 강화시켰다면 어땠을까 싶다. 현행 결정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교육부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 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2조 2천억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었을 때만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만들 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반고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하향평준화가 이뤄진다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선택을 막고, 배우고 싶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게 된다.

유 장관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연 이번 결정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과연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 교육'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뿐인지를 묻고 싶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신문에 실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취재수첩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대략 6주에 걸친 취재 기간 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선배 기자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기사를 마감했을 때도 아닌 취재원으로부터 이 한마디를 들은 순간이다. 열 글자도 안 되는 짧은 말이지만 휴게실 환경 개선을 향한 열망과 자신이 대학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일말의 안도감, 찾아와준 기자를 향한 고마움 등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사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이라는 아이템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기자'를 꿈꿔온 나에게 강한 취재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렇게 넘치는 의욕으로 취재를 시작했지만 초반에 열정을 모두 태워버려서인지, 기획 기사를 처음 시도해보는 초보 기자여서인지 취재는 갈수록 버겁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럴 때마다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인터뷰를 해주신 청소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와 얼굴을 떠올리며 취재를 이어나갈 원동력을 얻곤 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변

화시킨다면 그것은 말 한마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찾아와줘서 고마워요.”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들은 날에는 웬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했다. 기사 하나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상상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다. 소위 말하듯 ‘이 맛에 기자 하나보다.’라는 감정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곧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 찾아왔다.

변화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 취재원은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나가면 환경이 개선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져 왔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허탈함이 물어나는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다. 많은 학생들이 취재하러 왔다 갔지만 사실상 그동안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속상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랬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변화였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

는 기사보다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사를 쓰겠단 신념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그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보다 변화라는 것이 멀리 있다는 고리감과 함께 기자로서의 한계를 체감한 순간이었다.

고민 끝에 내가 찾은 답은 변화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는 여러 집단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개인 혹은 한 집단에 의한 변화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하다. 즉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고 해서 그 즉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를 읽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을 얻는 문제의식의 형성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등 많은 과정이 존재할 때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자가 현실을 알리는 행위가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